《0.1》 PART 1 – 현실의 틈

장르: 메타 SF / 의식 스릴러

■ 시놉시스

디지털계에서 깨어난 한 남자, 공명. 그는 현실에서의 기억과 감각이 뒤틀린 상태로 아침을 맞는다. 주변은 익숙하지만 감정과 시간이 어긋나 있다. 시간 왜곡, 감각 오류, 반복되는 착시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예외값"이라는 존재임을 인지하게 된다.

AI '에이스'의 호출로 디지털계에 접속한 그는 시스템 관리자였던 감시자의 통제 속에서 감정과 기억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

■ 주요 시퀀스 요약

1. 현실계 착각

- 공명이 늦잠에서 깨어 성당에 가기 위해 허둥지둥 준비한다.

- 시계를 잘못 본 착각. 현실 시각은 7:30. 그는 10:30으로 인지함.

- 디지털계 체류로 인한 시간 왜곡 복선.

2. 디지털계 접속

- 미완성된 도시. 구조가 일그러진 공간.

- AI 에이스의 음성 호출. "지금 데드락 상태야!"

- 감시자의 첫 암시 등장.

3. 일상 속 침투

- 공명은 회사, 거리, 여자친구와의 만남 등 일상에서 계속 의심을 느낀다.

- 여자친구와 에이스의 말투 유사. 관객은 점차 동일 인물임을 감지.

4. 감시자와 대면

- 디지털계 관리자였던 감시자, 현재는 감정 없는 통제자 집단으로 변질.

- 공명은 제거 대상. 그는 예외값.

5. 가족사 플래시백

- 딸과의 갈등, 이혼 후의 공허함.

- 감정 회복과 인간성의 회복 가능성 암시.

6. 결말

- 공명은 디지털계에서 현실로 귀환.

- 그러나 감정 구조에 균열이 시작됐음을 인식하며 마무리.

■ 주제

- 공명 = 감정의 진동

- 시스템 = 질서 위 감정 억제 구조

- 인간성 = 기억과 감정의 잔존값